

小延坪島 新石器貝塚 發掘調查

李 鍾 勳 (국립문화재연구소)

1. 머리말

우리나라 중부 서해안 지역 신석기시대 유적에 대한 조사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 학자에 의한 간단한 지표조사와 시굴조사가 그 시작이었으나 1960년대 시도패총이 발굴되기 전까지는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도패총 발굴 이후에도 한동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1980년대 이후 학술조사 차원에서 오이도 패총, 그리고 안면도 고남리 패총유적에 대한 발굴이 이루어졌고, 영종도 신공항 개발과 함께 이 지역의 신석기 유적 몇 곳이 조사된 바 있다. 또한 여러 차례에 걸친 지표조사를 통해 새로운 신석기시대 유적 수십 군데가 확인되어 비교적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확인된 유적의 수에 비해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곳은 극히 적으며, 조사된 지역이 육지 해안지역이나 육지와 가까운 도서에 편중되어 이 지역 신석기시대 문화상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연평도나 백령도 등 서해 5도서와 같이 상대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황해도 지역과 인접해 있는 도서지역의 발굴은 새로운 자료의 획득뿐만 아니라 이 지역 신석기문화의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발굴조사의 필요성으로 인해서 국립문화재연구소 유적조사연구실은 2000년에서 2001년까지 2개년에 걸쳐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소연평도에 소재하는 패총유적을 발굴조사 하였다. 2000년 발굴조사는 10월 30일~11월 22일까지 2001년 발굴조사는 3월 21일~5월 4일까지 실시하였다. 이 유적은 지난 2000년 군사보호구역 지표조사의 일환으로 옹진군 지역에 대한 지표조사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되었으며, 소연평도 내에 남아있는 5기(2000년 지표조사에서 3기, 2001년 발굴조사 당시 추가로 2기의 패총을 확인)의 패총 중 1기이다.

1) 이 글은 서울대학교박물관이 1999년에 실시한 덕적군도 일대의 고고학적 학술조사 보고서인 『德積群島의 考古學的 調查研究』에 실렸던 것(崔夢龍 외, 1999, 91-102쪽)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이다.

말씀 유적의 동물뼈 유물 연구를 맡겨주셨던 최몽룡 교수님과 신숙정 선생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